

- 주요 뉴스: IMF,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 자본유출 및 통화가치 하락 가능성을 경고
 - 미국 연준 의장,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피해를 제어할 방침
 - 미국 2021년 11월 도매재고, 전월비 1.4% 증가. 양호한 4/4분기 성장률을 시사
 -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 이견은 여전. 대화는 계속하기로 합의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
주가 하락[-0.1%], 달러화 강세[+0.2%], 금리 약보합[-0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장중 큰 폭의 하락을 대부분 회복
유로 Stoxx600지수는 기술주 약세 등으로 1.5%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통화긴축 강화 전망 등이 반영
유로화가치는 0.3% 하락, 엔화는 0.3%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저가 매수 유입 등이 영향
독일은 금년 말 ECB의 금리인상 가능성에 1bp 상승하며 2019년 5월 이후 최고치

※ 원/달러 1M NDF환율(1198.9원, -1.0원) 0.1% 하락, 한국 CDS 하락

		1/10일	1/7일	전일대비			1/10일	1/7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4,670.3	4,677.0	-0.14%	국채 금리 10y	미국	1.76%	1.76%	-0bp
	유럽	479.04	486.25	-1.48%		독일	-0.03%	-0.04%	1bp
	중국	3,593.5	3,579.5	0.39%	CDS 5y	한국	23bp	24bp	-1bp
	일본	휴장	28,479	-		중국	44bp	43bp	1bp
	한국	2,926.7	2,954.9	-0.95%	위험 지표	EMBI+	-	396	-
환율	달러지수	95.94	95.72	0.23%		VIX	19.40	18.76	3.41%
	유로화	1.1326	1.1360	-0.30%		WTI유	78.23	78.90	-0.85%
	엔화	115.20	115.56	0.31%	원자재	구리	437.5	441.0	-0.80%
	위안화	6.3762	6.3778	0.03%		금	1,801.7	1,796.6	0.29%
	원화	1,199.1	1,201.5	0.20%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IMF,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 자본유출 및 통화가치 하락 가능성을 경고

- 미국은 양호한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연말에는 인플레이션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 다만 지속적인 공급 병목과 인력 부족에 따른 임금 상승 등으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계속되어 예상보다 빠른 금리인상이 가능하다고 평가
- 미국 정책금리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하면 차입비용이 증가하면서 신흥국이 경제 혼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 특히 세계적으로 유동성 감소가 발생하면서 신흥국은 자본유출과 통화가치 하락을 겪을 수 있다고 전망
- 또한 높은 수준의 GDP 대비 부채 비율, 대규모 대외채무, 취약한 재정건전성 등을 겪고 있는 신흥국은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진단. 신흥국은 선제적 금리인상, 외환시장에서의 헤지 포지션 구축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의견 제시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연준 의장,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피해를 제어할 방침

- 파월 의장은 청문회 출석 전 공개된 사전 연설문에서 해당 내용을 피력. 다만 금리인상 계획 관련 내용은 언급을 회피. 한편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미국 경제의 지속적인 회복에 따른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때문이라고 설명

■ 미국 2021년 11월 도매재고, 전월비 1.4% 증가. 4/4분기 양호한 성장을 시사

- 이번 결과는 전월(2.3%) 대비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예상치(1.2%)를 상회. Moody's Analytics의 Matt Colyar은 4/4분기 도매재고 증가는 성장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 또한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최악의 시기를 통과한 것 같다고 참언

■ 미국 뉴욕 연은, 양적긴축은 만기채권의 재투자 중단 방식을 사용할 전망

- Lorie Logan 시장조작(Market Operation) 책임자는 지난 번 양적긴축은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을 재투자하지 않는 형태로 진행했는데, 이러한 방법은 효과적으로 작동했다고 평가. 이에 향후에도 이러한 접근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
- 해당 연은의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1년 및 3년 인플레이션 기대는 각각 6%, 4%로 전월비 보합. 식료품 및 휘발유의 가격 상승률 전망은 전월 대비 하락

■ JP모건, 지금은 주식 저가매수가 적절한 시기

- JP모건의 Mark Kolanovic 스트래티지스트는 통화긴축이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위험자산은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면서 주식 매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

■ 골드만 삭스, 연준은 금년 4회의 금리인상에 나설 가능성

- 안 해치우스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이 올해 4번의 금리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양적긴축(대차대조표 축소)은 늦어도 7월에 시작할 것으로 예상. 금리인상 시기는 3,6,9,12월이 될 수 있으며, 금리인상이 양적긴축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발언

■ 중국 국무원, 경제성장을 위한 지방특별채 발행을 촉진

- 경기회복 둔화를 방어하고 성장을 강화하기 위해 금년 계획했던 지방정부 특별채 발행의 속도를 높여 투자확대를 지원할 예정. 또한 부동산 침체 및 코로나 19 대응 등으로 위축된 소비를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

■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 이견은 여전. 대화는 계속하기로 합의

- 러시아 라브코프 외무차관은 우크라이나 침공 계획이 없다고 언급. 그러나 미국의 웬디 셔먼 국무부 차관은 러시아가 주장하는 나토(NATO) 확장 금지, 나토(NATO)군의 구소련 국가 주둔 금지 등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발언

■ 인도네시아, 석탄 수출 금지 조치를 완화

- 언론 매체에 따르면 당국에서는 수출용 석탄을 쌓은 14척의 선박이 필요한 검증 절차를 마치면 출항하는 것을 허용. 최근 국영전력기업 PLN의 석탄재고가 위험 수준까지 감소했으나, 다시 상황이 개선되면서 정부가 이러한 변화를 반영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1/10현지시각 기준)

- 유로존 2021년 11월 실업률: 7.2%, 10월(7.3%), 예상치(7.2%)
- 유로존 1월 섀프츠 투자신뢰지수: 14.9, 2021년 12월(13.5), 예상치(12)

■ 주요 경제 이벤트(1/11 현지시각 기준)

- 미국 연준 파월 의장 청문회, ECB 라가르드 총재 강연
- 미국 2021년 12월 중소기업 경기낙관지수, 호주 2021년 11월 무역수지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연준의 인플레이션 대응, 수요충격 간과 등 3가지 결함 존재 - Financial Times

(The flaws in the Fed's approach to inflation)

- 물가상승률이 6%를 넘어서는 등 연준의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 이와 관련하여 연준의 인플레이션 대응에는 3가지 결함이 존재. 첫째, 수요충격을 간과. 팬데믹 이후 억눌렸던 가계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도 증폭
- 둘째, 자연실업률을 3.5%로 설정하고 이에 이를 때까지 완화적 통화정책을 시행. 그러나 실제 자연실업률은 3.5%를 상회하여 정책 오류로 연결. 셋째, 한계치가 불분명한 평균물가목표제 도입으로 연준의 고물가 통제 관련된 신뢰가 약화

■ 중국의 오미크론 확산 방지 노력, 정치·경제적 이해 충돌을 초래 - WSJ

(With Omicron, China's Covid-19 Dilemma Deepens)

- 최근 중국에서는 오미크론 확산 가능성이 제기. 지난해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델타 변이를 성공적으로 차단한 중국은 소비 등이 심각한 타격을 받으며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수출증가가 이를 일정 부분 상쇄
- 하지만, 오미크론의 경우 세 번째 연임을 앞둔 시진핑 정부는 정치적 이유로 강력한 봉쇄 조치를 시행 중. 또한 대외적으로 과거와 같은 수출 호조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이러한 여건은 향후 중국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 요인
- 골드만삭스는 중국 내 오미크론 확산과 경제 봉쇄로 2022년 성장률이 0.9%p 하락하며 4%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관측

■ 우크라이나 사태, 에너지 가격 상승 및 인플레이션 심화 초래할 가능성 - Financial Times

(Russia/Ukraine: markets have not priced in worst-case scenarios)

■ 미국 내 오미크론 확산, 노동력 부족 등으로 제조업 우려를 가중 - WSJ

(Workers Sick With Omicron Add to Manufacturing Woes. 'The Hope Was That 2022 Would Get Better.')

■ 친환경 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중앙은행의 검토가 필요한 시점 - 블룸버그

(Greenflation is real and it's not transitory)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28, E-mail jsjeong@kcif.or.kr